

드레스덴 필하모니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러(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테르페 ('공경'이라는 뜻)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하였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작, R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지휘하였으며, 1934년부터는 파울 반 쾰렌, 카말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에는 루르트 마주어, 귄터 레르비히, 레르베르트 쾰렌, 미셀 클라우송 등 많은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인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2003-4년 시즌에는 가장 리카일 프리베 레 부르고스가 객원 지휘자로 있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루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개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맡겼는데, 특히 레르베르트 쾰렌이 지휘한 베르디 교향곡 진경, 파울 반 쾰렌 지휘, 빌헬름 쾰프 파이스의 모차르트 파이스 협주곡 20, 25(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길이 빛나는 명반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글루어플라츠(문화공원)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
Dresdner Kreuzchor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의 소속 소년 합창단이다. 합창단 역사에 있어 황금기를 이루는 38세기에는 드레스덴 국립 극장의 공식 오케라 합창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역사를 두 증강했던 1945년 2월 13-14일의 대공습에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도 예외가 아니어서 11명의 단원이 희생되고 학교와 교회 모두 파괴 되었으나 당시 합창단 지휘자로 있던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지되어 드레스덴이 편입된 동독사회의 억압속에서도 황금기를 구사하게 되었다. 마우어스베르거는 합창단원이었던 페터 슈라이어를 발굴, 일도 솔리스트로 기용하여 최고의 성가를 지루었고, 슈츠 바흐 등 작곡가의 종교음악을 녹음하여 지금까지 불후의 명반으로 평가 받고 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동독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경적 걸림과 온갖 장애 속에서, 페터 슈라이어를 내세우며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전후에 개최된 수많은 리허설과 공연은, 목적으로 한지라 파괴된 무의 도시에서 합창단을 도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합창 속에 재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각이 합창단에 바치는 기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고 지휘자를 따왔던 소년들은 다른 합창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사운드로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슈라이어 외에도 현재 독일내에서 최고의 클래식인 앙상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빈츠바흐 소년 합창단을 창단한 한스 탈과 드레스덴 국립 극장의 주역 가수 테오 아담, 독일 가곡에서 탁월한 재치를 보이는 바리톤 가수 올라프 베어도 이 합창단의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드레스덴 유적 페스티벌 감독이자 암스테르담 오페라 극장 지휘자인 하르부르 쾰렌도 1980년대 말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을 거쳐간 바 있다.

소년 합창단이나 다른 독일 소년 합창단들은 특성상 예쁘고 원상적인 음성을 구사하는 습관을 쓰지만, 드레스덴 성 십자가 소년 합창단은 힘 있는 30대 소년으로부터 무뎠한 독일인의 음성을 구사한다. 그래서 같은 조로 노래 불렀다 다른 합창단에 비해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가끔 알도에 소프라노가 불리는 효과는 웅기그릇같이 귀약한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무뎠하지만 깊은 태서 우러나오는 슬직한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한 건 이 알도의 힘이 크다. 고음이 강렬한 소년 합창에서 소프라노를 빼제하고 그런 합창을 만들어낸 긴장감 과감한 결단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이의 영혼 속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순수한 목소리를 지닌 것이 이 합창단의 최고의 매력인 것이다.

(지휘자 소개)

페터 슈라이어 | Peter Schrier (1935-)

세기의 테너에서 이제는 마에스트로의 길을 걷는 페터 슈라이어



금세기 최고의 미성을 가진 테너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 없이 페터 슈라이어(1935-)를 꼽는다. 구 동독 태생의 인물로서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테너인 슈라이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가 없었다면 헛나지 못했을 레퍼토리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높은 가창의 완성도를 가진 독일계 테너가 금세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에 그의 희소성은 더욱 가치를 발한다. 지난 40여 년간 오페라, 리트, 종교음악에서 발군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페터 슈라이어는 이제 직업을 마지막으로 가수 생활을 완전히 접었다. 한국에서도 역시 작년에 마지막 고별 콘서트를 열어 애호가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은 바 있다.

로데리히 크라이슬레 | Roderich Kreile (1953-)

성십자가 합창단의 제28대 칸토르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의 제28대 칸토르인 로데리히 크라이슬레는 뮌헨 출신으로 종교 음악과 합창을 전공했으며, 뮌헨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첫 합창 지휘자로 데뷔하였다. 1988년부터 90년까지는 뮌헨의 두지크호스슈레(음악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가르쳤고, 2개의 대학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큰 명성을 얻었다. 아울러 1994년에는 뮌헨 필하모니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세르지우 첼리비다세, 로빈 마진, 게르트 할트베르트 등 거장들과 함께 하였다. 1997년부터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의 칸토르로 있으면서 현대 음악도 자주 초연하여 합창단의 레퍼토리를 넓히며 독일은 물론 해외의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며 합창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